

학폭전담조사관제 안착할까...전남 조사관 모집 미달

광주 45명 모집에 88명 지원 경쟁률 1.95대 1...전남 추가 모집 4대 보험 안되고 건당 보수 15만~30만원 그쳐 처우개선 목소리 학부모 "제도 도입 환영" 교사 "단순 행정·사법적 판단될까 우려"

3월 신학기부터 시작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관) 공모 결과 광주의 경쟁률이 1.95대 1에 달했지만 전남 일부 지역은 미달됐다. 보수가 건당 15만원 수준에 불과해 처우 개선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교사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우려와 환영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5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는 총 45명 모집(동부 15명, 서부 30명)에 88명이 접수하는 등 경쟁률이 2대 1에 육박하고 있다. 전남은 198명 모집에 145명이 지원했다. 지원자가

미달된 강진, 영암, 신안지역에서는 추가 모집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통해 조사관 신설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직 수사관이나 퇴직 교원을 시도교육청 산하 '학교폭력 제로센터(제로센터)'에 배치해 학폭 사안조사를 맡기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모집했거나 모집 중에 있다. 당장 퇴직한 경찰이나

교원의 경우 한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광주에서는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처우 열악 등으로 전남에서는 미달 지역이 나오고 있다. 조사관 제도는 봉사위촉직으로 4대 보험이 되지 않는다. 1건 당 15만~30만원으로 수당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 보수에는 사안 조사, 보고서 작성, 학교폭력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교통비·식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런 한계 때문에 전문성 인력을 채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부모들은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다. 외부의 중립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전직수사관, 퇴직교원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혜윤 연세초 학부모회 부회장은 "학교폭력은 경미한 다름일수도 있지만 중대한 범죄도 있다. 그만큼 양상이 다양하다"면서 "학교폭력에 대해 경험이 있고, 수사 노하우가 있는 조사관들이 학폭 사건

을 맡는다면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용주초 학부모회장은 "협행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학부모 등이 포함된 기구를 통해 진행됐는데, 전담조사관이 전체적인 사안조사를 맡는다는 점에서 안심이 된다"며 "제3자가 보고 판단한다면 보다 정확하고 공평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제도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학교에서는 실효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지원 조건을 65세 이하로 명시했지만,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모집된 인원이 모두 60세 이상 이어서 손녀·손자 뺀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다루는데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광주지역 A교사는 "교사들이 그동안 학교폭력 조사를 맡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교사의 업무가 과중돼 학생들의 교육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아이들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담임교사이고,

이 부분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성향 파악 등을 위해 피치 못하게 교사들이 업무를 맡게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지나치게 법·행정적 잣대로 학생을 판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광주지역 B교사도 "학생들 사이에서 빛어지는 학교폭력은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잘 알아야 하는데, 단순 행정·사법적으로만 판단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도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를 맡으며 호소했던 것은 교사 보호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다"며 "조사관 제도만으로 교사들의 업무가 줄어들거나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학교폭력을 행정적으로만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걱정되는 대목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온누리 상품권 환급받자 5일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에서 시민들이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양동·월곡·대인·남광주·봉선시장에서 오는 8일까지 장을 보고 영수증을 제시하면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준다. /김진수 기자 jeans@

'청렴·글로벌 미래교육' 전남교육청 보직 인사

장기명 창의융합교육원장 등 6명

전남교육청이 창의융합교육원장에 장기명 지명 중 교장을 임명하는 등 3월 1일자 주요 보직 임용 대상자 6명을 확정 발표했다. <인사명단 21명> 5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 창의융합교육원장에 장기명 지명중 교장, 국제교육원장에 최정용 정책기획과장, 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에 문태홍 목표유달중 교장, 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에 김호범 상담대안교육팀장, 순천교육청에 허동균 광양하이테크 교장, 함평교육청에 박정애 학생생활교육과장을 각각 임명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주요 보직 인사 키워드는 청렴과 글로벌 미래교육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소멸의 위기 속 민·관·산·학의 협력적 체계 구축 및 전남 미래교육의 방향 설정과 과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낼 인물을 발탁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전남교육은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이를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주요 보직에 임용된 분들과 함께 '2024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전남교육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함께 그려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지속가능한 복구형 도시재생' 포럼 개최

광주시 복구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가 6일 복구북어울림센터 2층 어울림강당에서 도시재생 포럼을 개최한다.

광주시 복구 도시재생 지속성을 위한 사후관리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와 도시재생 사업지역 주민·공동체 등이 참여한다. 좌장인 김건안 의원(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이 토론을 주재하며 고희관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이 '제주도 도시재생 사후관리 유지·계획 수립 방안 및 현황' 조영우 광주대 교수가 '현 정부 도시재생 방향과 도시재생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 최장기 삼각동 주민자치회장이 이 마을자치 주도의 도시재생 사후관리방안'에 대

한 발제를 한다. 토론자로선 이명규 광주대 교수, 박영준 오월첫 동네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김선희 버드리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 김숙희 광주시복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이 참여한다. 광주시 복구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는 도시 경쟁력 제고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달 2일 개관했다. 복구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민·관이 협력해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방안에 대한 고민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주민주도의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구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12·12 희생' 정선엽 병장 유족 국가 상대 손해 승소

"유족 4명 총 8천만원 지급" 판결...16일 조선대서 정 병장 명예졸업식

12·12군사 쿠데타 당시 육군본부 병커를 지키다 희생된 고(故) 정선엽(당시 23세) 병장(광주일보 2023년 12월 1일자 7면) 유족 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홍주현 판사는 정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족 1인당 20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병장은 국방부 B-2 병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됐다"며 "전사임에도 국가는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사

방사고로 순직 처리해 망인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망인의 생명과 자유가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정 병장의 명예졸업식은 조선대학교에서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정경호 시인 043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경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